

가족구조 변인에 따른 정상가정 아동과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n the Children's Personality of the Normal Home and the Broken Home

이 미 옥
Lee, Mi Ok
고 정 자**
Ko, Jung J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broken home influence the personality development. in comparison of the personal characters of the child of broken home with those of the child of normal hom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1 broken homes children and 183 normal homes children of 5th grade. sampled from elementary schools in Busan.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as the character inventory prepared by Lee Sang Rho. etc. The result of the personality test was compared according to each variable(as follws)and the mean(M) standard deviation(SD) and T-test were obtain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1. The child of normal homes is superior in superiority than the child of broken homes
2. The boys of normal homes are superior in sociability than the boys of broken homes, boys of broken homes, but there was no outstanding difference between the girls of normal homes and the girls of broken homes.
3. In the case of extended family, there was no outstanding difference between the child of normal homes and the child of broken homes, but in the case of nuclear family, the child of normal homes is superior in sociability and superiority than the child of broken homes.
4. In the case of only child homes, there was no outstanding difference between the child of normal homes and the child of broken homes, but in the case of sibling child homes, the child of normal homes is superior in sociability and superiority than the child of broken homes.

* 본 논문은 1990년도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인간의 행동은 유기체의 변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 발달해 간다.

인간이 출생한 후 최초로 소속하는 환경은 가정으로 이 집단속에서 아동 개개인의 독특한 성격특성들이 형성되어 간다. 특히 아동의 아주 어린 시기의 가정적 경험은 아동의 발달 전 과정에 있어서 가장 형성력을 지닌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이 모든 심리학자, 정신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사회사업가에 의하여 긍정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릴때의 가족과의 인간관계는 성장한 후에 사회에서 맺게되는 인간관계의 모형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중요한 것이 된다.

Parsons와 Bales(1965)는 어린이들의 성격은 부모에게서 유전인자를 받는것이 아니라 출생 후 가정의 체제, 부모의 태도, 가치관 등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가정에서 경험한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므로 어린이는 다같이 건강한 부모와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 缺損家庭은 394,380 가구였으나 1980년 현재 거의 2배에 해당되는 743,627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그 비율은 전가구 구성에 있어서 10%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기획원, 1966, 1980)

缺損家庭의 주 원인이 과거에는 주로 부모의 사망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화, 그리고 가치와 규범의 변화 등에 의하여 離婚 및 別居의 증가, 未婚母의 증가, 海外就業를 비롯한 직업에 따른 아버지와

의 別居 등으로 인한 缺損家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점차 부부 중심으로 되어 가고 있는 핵가족은 부부 중 일방의 의도적 또는 무의도적 결손으로 인하여 쉽게 해체되어 缺損家庭으로 존재하게 된다.

부모 중 한 분의 상실은 자녀에 대한 교육적 어려움과 가정이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이게 됨으로 걱정이나 두려움을 갖게 되는 기회가 흔히 있게 되며 심리적 불안정이 성격구조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수가 많다.

따라서 缺損家庭 아동들에게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불안정, 부적응 등의 性格의 缺損現象은 어떠한 가족구조 변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正常家庭 아동들의 성격특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여 보는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正常家庭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을 가족구조 변인과 관련시켜 비교, 연구하여 좀더 이론적이고 실증이 될만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학교, 사회에서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 발달해 나가는데 적절한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문제 1: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 2: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 3: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은 가족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문제 4: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은 형제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환경과 성격특성

가정환경 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모든 조건과 자극과 그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가족원의 구성, 가족관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위치 등은 물론 이들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녀의 교육방식, 부모-자녀와의 대인관계, 가치관 등도 가정환경에 포함된다. 가정환경은 최초의 인간 형성의 도장으로써 다른 환경요인 즉, 학교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비하여 더욱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가정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황정규(1964)는 물리적 환경으로 거주지, 교육, 문화시설, 경제생활, 학습시설 등을 들었고 심리적 환경으로는 가족, 교육정도, 집안분위기, 가족생활 등을 들었다. 김광웅(1974)은 물리적 환경을 눈에 보이는 상호작용적 관계와 물질이나 금전을 투자하여야만 일어날 수 있는 관계로 보았다.

그러나 Song과 Hattie(1984)는 가정환경을 가족구조와 사회적 지위, 가족의 심리적 특성 등으로 분류하고 가족구조에는 출생순위와 자녀의 수를 사회적 지위에는 부의 직업과 부모의 교육수준, 대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을 들고 있고, 가족의 심리적 특성에는 激勵와 期待, 가정에서의 교육적 활동, 교육적 관심, 자녀의 지적 능력에 대한 부모의 평가, 보상과 벌 등을 들고 있다.

조은숙(1975)은 성격형성의 장으로서의 가정환경이란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이 크며 가정은 인생 최초의 교육의 장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양식, 행동양식, 습관 등이 형성되고 가족 구성원간의 인간관계에서 욕구충족이나 사회성이 발달해 가며 그 가운데서 독자적인 자아개념, 성격특성이 형성되어 간다고 하여 가정환경이 성격형성에 미

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훈영(1984)은 성격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 한 개인이 취하게 되는 피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이 사회적 이미지만 그가 자기 주위사람에게 표명하는 공적 성격(public personality)을 뜻한다고 하였다. Allport(1961)는 성격(personality)이란 환경에 대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적응하려는 개인의 심리, 생리 체계의 역동적 조직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Shirely(1970)는 성격의 변화가 물론 환경적 변인에 의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변화란 것은 본래의 성격중심의 한계내에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성격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의 제반조건에 반응하는 일괄된 사고 및 행동양식으로 고유한 인간의 제반성질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가정결손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缺損家庭이란 兩親 또는 그 한쪽 偏親이 없는 가정을 말한다. 그 원인으로서 死別, 離婚, 別居, 遺棄, 失蹤, 受刑, 長期不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양친이 같이 있더라도 가정의 본질적 기능인 생활의 상호보장과 심리적, 신체적으로 자녀의 양육이 결여되어 있는 가정을 기능적 결손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 양친의 불화, 갈등, 방임 및 가정의 부도덕 등이다.

그러므로 兩親이 다 같이 있어서 형태적으로는 缺損家庭이 아니더라도 기능적으로 缺損家庭인 경우가 적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형태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繼父, 母가 있더라도 缺損家庭으로 취급하고 있다.

缺損家庭은 대개의 경우 생활이 빈곤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 아동의 정신상태를 왜곡시킬

요소가 있으므로 문제시되고 있다.

缺損家庭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偏母家庭은 偏父家庭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책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아동에게 많은 기대를 하거나 신경질적으로 감독하면 반항적인 심리상태에 빠지게 된다(이순영, 1983). 또한 어머니가 남편대신 자녀에게 지나친 애정을 쏟아 제멋대로 방치하면 幼兒的이고 자립성이 없는 경향을 지니게 되는 수가 있다. 특히 남아는 동일시의 대상이 없고 여아는 사랑의 대상이 상실됨으로써 그들의 건전한 사회성 발달에는 많은 문제점이 초래된다. 유안진(1982)은 남아의 경우 父親不在는 남성다움을 배울 기회가 적어 父親在 아동보다 여성적이고 복종적, 의존적이며, 또 남성다움을 과시하고자 할 때 과격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Hetherington과 Deur(1972)는 父의 不在는 소년에게는 학령전기에 사회적 발달과 성격발달의 측면에서 여성적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며 소녀의 경우 인생초기에 父의 不在 영향은 거의 없으나 성인기에 이성관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偏父家庭은 경제적 부양 기능에 있어서 母子家族만큼 장애를 가져오지 않으나 애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남아는 사랑의 대상을 잃게 되고 여아는 동일시의 대상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건전한 양육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Terman과 Miles(1974)에 의하면 첫째, 아버지가 死亡 또는 6세전 家出로 偏母膝下에서 자랐을 때 가장 남성적이고, 둘째, 偏父膝下에서 자랄 때는 그 다음이고, 셋째, 兩親이 모두 死亡한 孤兒일 때 가장 여성적이었다. 즉, 偏母 밑에서 자라는 아들이 偏父 밑에서 자라는 남아보다 더 남성적이었다고 하였다.

崔喜應(1977)은 가정적 자아에 있어서 偏母家庭 학생보다 偏父家庭 학생이 심한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偏母家庭 학생이 偏父家庭 학생보다 가정에서 불화나 갈등이 적으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父母의 役割은 자녀에게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缺損家庭인 경우 한쪽 父母가 1인 2역을 하게 되므로 어느 역할에도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3. 관련된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가족구조 변인에 따른 성격특성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계영(1975)은 원만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동들보다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일부 특수아동들에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특히 보호자의 사망, 부모의 이혼 등이 문제유발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지배성, 안정성, 사회성의 성격요인에 있어서는 正常家庭 아동이 缺損家庭 아동보다 유의있는 차이로 높았으며 활동성, 충동성, 사려성에 있어서는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金京中(1982)의 연구에서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은 활동성과 사회성에서 正常家庭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缺損家庭 남·녀간의 성격특성 비교에서는 각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범윤(1983)은 缺損家庭 학생이 正常家庭 학생보다 활동성, 지배성, 역동성, 사회성, 남향성에서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으며 缺損家庭 아동의 남·녀간 성격요인 비교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안정성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이창미(1988)는 父親在 아동이 父親不在 아동보다 남향성, 책임성, 활동성, 우월성, 사회성, 사려성, 안정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缺損家庭 아동중 여아가 남아보다 남향성에서 더 높은 점수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아동의 성격형성상 조부모의 영향력 여부도 학자마다 그 의견이 다양한데 먼저 확대족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金聖奎(1971)는 아동의 육구충족 공급자며 의존의 대상이 되는 어머니 역할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인 多數母親 조건이 아동의 성격발달에 좋다고 하였다.

Mead(1972)는 가족내의 인간관계에서 3代の 동거는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즉 3代的 동거는 조부모들만을 위한것이 아니고 孫子女에게도 어려서부터 부모 이외의 광범위한 인간관계로 원만한 성격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확대가족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으로 孫直鍊(1970)는 확대가족의 아동은 조부모의 양육방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데 특히 組父母의 과보호로 사회성 발달에 장애를 받는다고 하였다.

조복희(1977)는 확대가족 아동이 남·녀구별없이 안정성이 높으며 핵가족 아동은 활동성, 충동성이 높다고 하였다.

김제한(1984)은 남아의 경우 가족형태에 따른 성격요인 점수는 사회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핵가족에서의 성격요인 점수가 확대가족에서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한자녀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한자녀의 열등성을 강조했다. 즉 Hall(1957)은 독자인것 그것만으로서도 하나의 병이다라고 하였는가 하면,

Neter(1957)는 그의 임상적 연구결과로서 독자는 겁쟁이며 의지가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今村南一郎(1971)은 부모의 관심이 한자녀에게 집중되어 아동을 밖에 내보내지 않는 태도와 한자녀는 부모에게 과대한 애정을 받게되므로 필요 이상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되어 한자녀의 활동성이 낮다고 한다.

이원영(1973)은 부모의 한자녀에 대한 태도가 복종적, 과보호적, 지배적이기 때문에 한자녀가 多子女보다 사회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했다.

朴容憲(1973)은 아동의 가정에 있어서의 출생순위 및 형제자매의 수와 비율도 성격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예를들면 한자녀는 부모와 수직관계를 갖고 있으나 형제가 없어 횡적관계가 결여되므로 자칫하면 사회적 부적응아가 되기 쉽다고 하였다.

이같은 초기의 생각들은 한자녀는 커다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로 보고서 타아동과 같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생활에 적응할 수 없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한자녀에 대한 의견이 크게 바뀌고 있다.

Falbo와 Polit(1982)는 지금까지 한자녀와 관련된 141개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오히려 한자녀가 더 지적이고 사교적이며 학교에서의 문제행동도 적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偏見에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김제한(186)은 한자녀와 多子女의 비교연구에서 한자녀의 경우는 활동성, 지배성, 사려성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多子女보다 더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결과를 얻음으로서 子女數나 出生順位 등은 성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을 표집하여 비교집단으로 삼았다. 국민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동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아동들이 분별력과 가치판단이 확립되고 아동의 성격이 거의 형성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예비조사는 1990년 2월 7일 국민학교 3학년, 5학년 학생 각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3학년 학생은 문장의 이해력이 부족하여 본 조사에서는 5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1990년 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본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작성케 하여 회수하였다.

缺損家庭 학생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아동으로 父나 母 가운데 어느 한쪽이 缺損 되어 있는 가정의 아동으로서 부산시내 9개 국민학교 5학년 가운데서 추출하였다. 그리고 缺損家庭 아동만을 별도로 모아서 집단검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그들의 열등의식으로 인한 의식적, 무의식적 예방심리가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을 모아서 같이 검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총 360부를 배부하여 미완성인 질문지를 제외한 29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절차

본 연구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로는 아동의 개인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와 아동의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표준화된 성격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들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환경

조사대상자의 개인환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상태, 가족형태, 형제수,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을 조사하였다.

(2) 성격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격검사의 도구는 이상로(1987)의 2명이 엮은 국민학교 고학년용 표준화 성격 진단검사지이며 이것은 총 10개 특성 2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내용은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의 7가지 기술척도와 우울경향, 불안경향의 2가지 임상척도로 나누어 성격을 측정, 진단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수검사의 응답 신뢰성을 알수 있게 해주는 한개의 타당성 척도를 추가시키고 있다.

임상척도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훈련의 배경없이 해석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인 것 같아 제외시켰다.

3. 자료처리

본 검사의 자료처리는 SPSS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성격검사에서 나온 각 성격특성의 점수와 규준상의 백분위(PERSENTITLE)가 일괄해서 표시되어 있는 성격비교표의 규준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영역별로 나누어 평균(M), 표준편차(SD)를 구하고 T 검증을 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1) 조사지역을 부산시로 한정시켜 일반화 하는데 무리가 있다.

(2) 국민학교 5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VI. 결과 및 논의

1.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전체적인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구분	인성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	
正常家庭兒童	n=183	M	43.83	51.53	54.91	47.80	39.95	51.02	55.25
		SD	27.46	30.27	28.87	27.45	27.95	28.87	30.17
缺損家庭兒童	n=111	M	39.56	45.79	48.73	42.64	37.52	45.68	46.91
		SD	26.13	30.74	29.46	27.50	28.56	29.23	30.28
T			1.33	1.56	1.76	1.56	.71	1.53	2.29*

* $p < 0.5$

〈표 1〉에 의하면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요인 점수는 우월성의 경우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缺損家庭 아동이 正常家庭 아동보다 우월성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崔喜應(1977), 金順愛(1987), 이창미(1988)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缺損家庭 아동은 正常家庭 아동보다 편친이나 양친이 없는데서 오는 허전함이나 가족구성 요소간에 부적응 및 긴장상태로 인해 매사에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으며 열등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缺損家庭 아동이 正常家庭 아동보다 책임성이 높다는 李男基(1979)의 연구와 활동성, 지배성, 사려성, 사회성에서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이 正常家庭 아동보다 훨씬 높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는 김경중(1982)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는 缺損家庭 아동 중에서 父親不在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때 과거에는 缺損家庭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에서의 자극과 학교, 사회로부터의 부적응 등으로 인한 자아상실의 성격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부적응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상호협력하여 지도하고 있으므로 正常家庭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2.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 비교

1) 남아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표 2〉에 의하면 正常家庭과 缺損家庭 남아의 성격요인 점수는 사회성의 경우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缺損家庭 남아가 正常家庭 남아보다 사회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缺損家庭 남아가 正常家庭 남아보다 사회성이 낮게 나타난 李男基(1979), 이우신(198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缺損家庭이라고 하여

〈표 2〉 남아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구 분	인성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	
正常家庭兒童	n=96	M	44.84	47.45	54.16	44.39	37.43	46.88	56.31
		SD	27.99	29.54	27.79	25.93	27.56	28.53	29.92
缺損家庭兒童	n=65	M	40.35	39.75	45.31	36.35	34.17	43.78	48.48
		SD	27.11	29.59	27.85	25.49	28.21	29.48	27.98
T			1.02	1.62	1.98*	1.95	.73	.66	1.70

* p<0.5

무조건 문제시 하거나 천시하려는 경향과 한쪽 부모가 없는데서 오는 사회적, 심리적 문제로 인한 불안으로 열등감을 가지게 되어 사회활동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대인관계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희선(1974)은

家庭缺損이 사회적 적응과 관계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2) 여아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표 3〉 여아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구 분	인성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	
正常家庭兒童	n=87	M	42.71	56.03	55.75	51.56	42.72	55.59	54.07
		SD	26.97	30.60	30.15	28.72	28.27	28.72	30.57
缺損家庭兒童	n=46	M	38.43	54.33	53.57	51.52	42.26	48.35	44.70
		SD	24.93	30.61	31.26	28.05	28.67	28.98	33.46
T			.91	.31	.39	.01	.09	1.37	1.58

〈표 3〉에 의하면 正常家庭과 缺損家庭 여아의 성격요인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正常家庭 여아의 성격요인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李昌美(1988), 이우신(1982)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임성에서 缺損家庭 여아가 正常家庭 여아보다 높다고 한 李男基(197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형태적 결손에 대한 기능적 결손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에 기인한 것 같다.

3.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가족형태에 따른 성격특성 비교

1) 확대가족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표 4〉에 의하면 正常家庭과 缺損家庭 확대가

〈표 4〉 확대가족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구 분	인성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
正常家庭兒童	n=64	M	39.83	53.50	51.81	48.16	39.77	52.28	50.36
		SD	26.82	28.57	29.62	29.44	28.18	28.13	30.98
缺損家庭兒童	n=31	M	32.19	49.16	49.74	42.61	36.29	46.65	39.94
		SD	21.18	30.58	29.68	26.86	24.22	27.56	29.26
T			1.51	.66	.32	.91	.62	.93	1.60

족 아동의 성격요인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최재숙(198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정상가정 확대가족의 아동은 가족과 많은 대인관계의 경험을 얻을 수 있어 이 경험들로부터 좋은 성격을 형성할 수 있으며 缺損家庭 아동 중에도 확대가족의 경우는 부모의 缺損이 있긴하나 祖父母의 애정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므로 원만한 성격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祖父母의 孫子女에 대한 과보호적인 태도로 인하여 孫子女의 성격형성에 나쁜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Havighurst(1953)의 견해처럼 할머니와 어머니가 상호동의에 의해 자녀를 양육하면 보다 만족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조화롭고 바람직한 방법과 태도가 요망된다.

2) 핵가족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표 5〉 핵가족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구 분	인성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
正常家庭兒童	n=119	M	45.98	50.47	56.58	47.61	40.01	50.34	57.87
		SD	27.66	31.22	28.45	26.45	27.94	29.36	29.52
缺損家庭兒童	n=80	M	42.41	44.49	48.34	42.65	38.00	45.30	49.61
		SD	27.41	30.89	29.55	27.91	30.20	30.01	30.42
T			.90	1.33	1.96*	1.25	.48	1.17	1.90*

* p<.05

〈표 5〉에 의하면 正常家庭과 缺損家庭 핵가족 아동의 성격요인 점수는 사회성과 우월성의 경우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핵가족에 있어서는 缺損家庭의 아동이 사회성과 우월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격특성이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부모가 존재하는 가정의 아동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보다 사회성 발달에 더 유리하다는 宋大炫, 金順玉(1974)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간관계,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자신과의 인간관계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그 경험이 子女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缺損家庭의 아동은 정상적인 부모-자녀관계를 경험할 수 없으므로 正常家庭의 아동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缺損家庭 아동이 우월성이 낮게 나타난 점은 부모중 한분의 상실이 자녀로 하여금 열등의식을 갖게 하므로 정상적인 부모-자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모의 생존 그 자체도 아동

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4.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형제수에 따른 성격특성 비교

1) 한자녀 가정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표 6〉에 의하면 正常家庭과 缺損家庭 한자녀

〈표 6〉 한자녀 가정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구분	인성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	
正常家庭兒童	n=26	M	49.85	62.46	52.35	49.31	34.35	45.15	61.35
		SD	28.52	32.08	27.21	29.12	31.69	31.78	33.14
缺損家庭兒童	n=14	M	48.63	58.10	55.45	47.93	37.95	42.83	60.13
		SD	27.29	34.17	29.68	27.27	30.05	32.34	33.67
T			.39	1.05	-.84	.46	-1.09	.60	.30

아동의 성격요인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자녀 아동일 경우 인격적으로 성숙되고 잘 적응된 사람으로 발달할지의 여부는 부모의 유형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正

常家庭 아동의 경우 가정불화로 인해 항상 정서적인 갈등 상태에 있거나 냉담한 가정 분위기에 서 성장할 때 그리고 형식적으로 부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繼父, 繼母로 인한 갈등 등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표 7〉 多子女 家庭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구분	인성	안정성	활동성	사회성	남향성	책임성	사려성	우월성	
正常家庭兒童	n=157	M	42.83	49.72	55.34	47.55	40.87	51.99	54.24
		SD	27.24	29.68	29.20	27.25	27.26	28.35	29.64
缺損家庭兒童	n=97	M	38.54	45.19	46.93	42.25	36.49	46.71	45.33
		SD	26.18	29.80	28.47	28.02	28.82	28.50	29.28
T			1.24	1.18	2.26*	1.48	1.20	1.44	2.34*

* p<.05

형식적인 缺損에만 의존하였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多子女 家庭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

〈표 7〉에 의하면 正常家庭과 缺損家庭 多子女의 성격요인 점수는 사회성과 우월성의 경우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正常家庭의 多子女 아동이 사회성과 우월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正常家庭 多子女 아동은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따뜻한 감정의 교환으로 缺損家庭 多子女 아동보다 사회성 형성이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요인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부모의 缺損이라는 현상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함으로써 缺損家庭 아동의 바람직한 성격형성을 도와주며 나아가 아동의 가정교육, 학교생활지도, 상담활동 등에 기초적인 자료로 삼고자, 이상로 외 2인이 제작한 성격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에서는 우월성에서 正常家庭 아동이 缺損家庭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성격요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남아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에서는 사회성에서 正常家庭 남아가 缺損家庭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缺損家庭 여아보다 남아가 家庭缺損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확대가족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핵가족에 있어서는 사회성과 우월성에서 正常家庭 핵가족 아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4. 한자녀 가정에 있어서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 비교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多子女 가정의 경우 사회성과 우월성에서 正常家庭 多子女 아동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가지 제언을 첨가해 두고자 한다.

첫째, 正常家庭 아동과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缺損種類에 따라 死亡, 離婚, 別居, 長期不在 등의 요인별로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正常家庭이라고 하더라도 父母의 不和, 葛藤, 不道德 등에 의하여 가정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적 결손현상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표집대상을 가정의 경제수준, 연령별, 결혼시기, 결혼기간별 또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력 등의 가정의 제반조건에 따라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폭 넓게 연구하여 볼 필요가 있다.

넷째, 偏父家庭 아동에게 繼母의 출현과 偏母家庭 아동에게 繼父의 출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낼 수 있는 다른 방향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경제기획원(1966, 198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 교육공학사전편집 위원회편(1972). 교육공학사전. 서울:교육공학사전편집위원회.
- 金京中(1982). 父親不在가 자녀의 이성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규(1970). 발달심리학. 서울:법문사.
- 김수길(1970). 한국소년범죄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金順愛(1987). 缺損家庭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金濟漢(1984). 가정환경변인과 자녀의 지능 및 인성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제한(1986). 한자녀의 多子女의 비교-가정환경요인과 자녀의 지능 및 인성과의 관계. 서울: 대한 가족계획협회, 1-7.
- 남억우, 김진양 공저(1970). 아동심리학. 서울:학우사.
- 박준희(1970). 교육 심리학. 서울:교육출판사.
- 손직수(1970). 가족관계와 아동의 성격형성. 성균관대 논문, 제 5집.
- 宋大炫, 金順玉(1974). 여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가족형태의 영향에 대한 연구. 전남대 논문, 제 20집.
- 이계영(1975). 환경에서 오는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李男基(1978). 祖母의 동거가 孫子女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 논문, 제 17집.
- 이남기(1979). 家庭의 구성적 缺員이 아동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범윤(1983). 缺損家庭 학생의 성격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서울시내 중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로, 진위교, 변창진(1987). 표준화 성격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이순영(1983). 父親不在가 여아의 성유형 선호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우신(1982). 缺損家庭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영(1973). 아동의 社會的 特性과 어머니의 양육방법 및 태도에 관한 일반론. 대안 가정학회지.
- 유안진(1982). 육아론. 서울:문음사.
- 이예영(197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남성-여성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李昌美(1988). 父親不在가 아동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영(1984). 성격심리학. 서울:법문사.
- 조복희(1977). 祖母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숙(1971). 정신위생. 서울:재동문화사.
- 조희선(1978). 缺損家庭 자녀의 가정환경과 적응에 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재숙(1980). 缺損家庭兒의 성격요인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崔喜應(1977). 缺損家庭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정규(1964). 행동 진단의 기술. 서울:현대교육총서 출판사.

- Allport, G. W. (196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enry Holt & company.
- Falbo, T. & Polit, D. F. (1987). A only child and personality development: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12-215.
- Hall, G. S. (1957).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Havighurst, R. J. (1953). *Intelligence and Cultural Difference*. The University of Chicago-Press.
- Hetherington, E. M. & Deur, J. (1972). The Effect of Father Absence on child Development. In W. W. Hartup (ed.), The Young Child Reviews: of Research (vol. 2). 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303-319.
- Mead, M. (1972). The changing in American family children, 173.
- Parsons, T. & Bales, R. F. (1965).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10-11.
- Mussen Paul H. et. al. (1983).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Parents. In T. & RF Bales, Family Socialization & Interaction Process. Illinois: The Free Press.
- Song, I. S. & Hattie, J. A. (1984). Home environment, self concepts and academic achievement: A Casua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vol. 76, no. 6, Dec.